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검찰, 수사 개시 이후 벌써 3번째

해당 간부 개입 여부 파악 위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검찰이 19일 광주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 했다. 수사 개시 이후 벌써 3번째 압수수색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정무특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

자 선정에 이날 압수수색 대상인 해당 간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

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중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A 전 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관리형

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전 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운영열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탄나눔으로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한파가 찾아온 19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기독교중점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19 따뜻한 중구 만들기 연탄나눔'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트럭에 싣고 있다.

여수해경, 불법 조업행위 대대적 단속

전담반 편성·운영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하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잡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수사와 형사계와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관들을 집중 투입,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잡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불법 어구 사용

행위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새우조망 불법 개조와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시부터 불법 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와 사용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우범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전남도 “해외 여행객 모기매개감염병 조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전남에서 뎅기열 및 치쿤구니야열 양성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19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8월 지카열, 10월 치쿤구니야열, 11월 뎅기열 양성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 자료 분석 결과 뎅기바이러스는 159건에서 238건으로, 지카바이러스는 3건에서 10건으로,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3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최근 모기매개감염병 유행지역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모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매개감염병은 숲모기류에 물려 발생한다. 발열·발진·관절통·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며 심근염이나 뇌염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카바이러스는 임신부에 태아 소두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전 모기매개감염병 발생국가 확인 및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발진·관절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출소 한달도 안돼 4개월동안 37차례 절도행각

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셉프세차장에 있는 동전함을 손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하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셉프세차장에서 동전함을 손괴한 뒤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이후 지난 9월14일까지 다수를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391만4000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 범행을 시작해 3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A씨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중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재물을 훔쳤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전력과 방법, 횡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영암서 22톤 탱크로리 넘어져 경유 유출

19일 오전 6시46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경유를 실은 22톤 탱크로리가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5)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탱크로리에 실린 경유 일부가 도로에 흘러 관계 당국이 목포~영암 방향 통행을 통제하고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탱크로리에는 경유 약 2만4000리터가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서 고3학생 도로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져

18일 오후 7시15분쯤 광주 서구 마북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A군(18)이 B씨(26)가 몰던 승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은 광주 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취업반 학생으로 최근 인근 레스토랑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려다 주행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운전부주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인근 식당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캠핑장 텐트서 일산화탄소 중독...남녀 2명 숨져

18일 오후 11시께 울산 동구의 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텐트는 완전히 닫혀 밀폐된 상태였고, 텐트 안에는 숯이 탄 화덕이 놓여있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찾았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숯 화덕을 사용하듯 텐트 안에 넣어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두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